

나주 '건강검진·암 검진율 지표' 우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나주시의 주민 밀착형 보건으로 정책이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258개 시·군·구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나주시민 901명(542가구)을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해 실시했다.

나주시는 조사 결과(괄호 전국 평균)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67.6%(66.9%), 건강검진 수진율 79.6%(71.5%), 암 검진율 66.7%(51.2%),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70.0%(68.1%)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현재흡연율 18.6%(20.3%), 월간 음주율 55.6%(전국 평균 58.0%), 아침식사 실천율 50.0%(전국 평균 47.0%), 고혈압 진단 경험률 19.2%(전국 평균 20.6%)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나주=허필수 기자

영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51~70세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검진비용 100% 지원

영광군은 농작업 질환 관련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50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70세 이하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진비 22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검진과목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기존 검진과는 달리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되어 있다.

농작업 질환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는 4월부터 우리 군 검진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태양열·지열·연료전지·태양광 설치 신청

장성군이 주택에 태양열·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일반모델)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64%인 342만 원을 보조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9가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8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는 설비 내용과 면적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하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지원 대상 선정 후 자부담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최종 사업 승인이 난다.

이후, 시공을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절차를 밟으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여기업 목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나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운수대통' 담양쌀, 체코 식탁에 오른다

올해 프랑스·오스트리아 이어 2번째 수출계약

1년 간 매달 20톤 수출... 현지 한식당 등에 판매

전남 담양쌀이 연이어 유럽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아인 식료품 유통 전문 업체인 'SHINFOOD'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t을 전남 선적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출 조도 물량 이후 두 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 간 매달 20t을 수출해 현지 한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대상과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자타공인 최고급 명품 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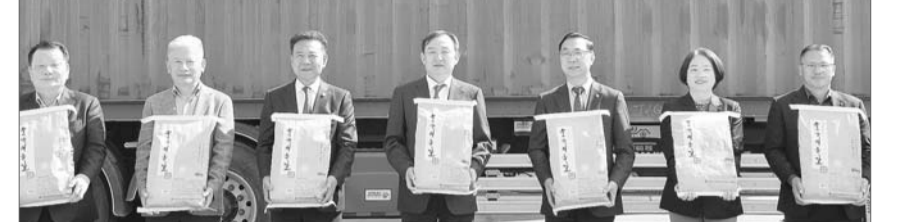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 유럽에 300t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2년전 준공한 담양 통합RPC는 유럽에 적용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관리시설 인

수대통 담양쌀 유럽(체코) 수출 선

2024. 4. 1. [월] 수입자 SHIN S.R.O 수출자 경기무역공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증을 획득했고,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수출 최적화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수출 확대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부가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승태 기자

화순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오는 20~21일 개최

도곡의 맛·볼거리 향연

화순군은 2일 도곡면 변영회가 '2024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의 동반 축제'로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곡면은 고인돌 역사·문화자원 이외에도 미니파파리카 등 특화농업이 발달해 지역의 소득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도곡 변영회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6개 단체와 협력하여 축제 행사장에 부

스를 마련, 도곡에서 생산되는 우수농 특산물 홍보 목적의 ▲농특산물 시식회 ▲비빔밥 퍼포먼스 ▲떡메치기 체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변영회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해 도곡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맛 좋은 고품질의 우수농 특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소스 1000원 - 농산물 10,000원 세트 ▲소고기 부위별 할인 판매, 쌀 500g 무료 제공 ▲부스 방문객 600인 무료 비빔밥제공 등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화순의 대표 축제인 고인돌 축제와 동반해 파격 형태로 시도되는 도곡의 지역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상당한 연쇄(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수진 도곡면장은 "도곡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및 먹거리를 충족시키고, 고인돌(봄·가을꽃) 축제와 더불어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가 더욱 매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교통사고 취약지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함평군은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라포엠 사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춘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군은 취약지점 선정과 설계에 이르기까지 함평경찰서 교통계와 긴밀히 협의, 작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해 이번 3월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군은 이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라포엠 사거리' 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사고위험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흥 '생명존중 안심마을 서약' 지역 9개 기관 참여

생명지킴이 교육·고위험군 발굴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



장흥군은 2일 장흥읍 9개 기관과 함께 '2024년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조성 사업이다.

사업은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유

관, 지역 사회, 공공서비스 등 6개 영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고위험군 발굴·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5개 분야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서약식에는 보건소, 김성훈이비인후과, 성경의원, 향원중학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장흥우체국, 원할인마트, 하나로약국, 장흥건설2주거행복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군은 2024년 장흥읍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의 마음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울, 불안, 자살,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건강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864-0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가사번호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담양군 지역발전을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관련 문의 ☎ 061) 380-3217~3220

담양에 기부하시면 고향의 마음이 담긴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드립니다.

- 대순맑은 담양쌀
- 대순맑은 담양한우
- 떡갈비
- 전통주
- 담양사랑 상품권
- 한과(약과)
- 쌀엿
- 장류
- 죽순
- 관광문화상품
- 방울토마토
- 샤인머스켓
- 블루베리
- 단감